



치열한 K리그1 “1부 잔류 주인공은 나야”

박건하 감독 부임 후 뒤늦게 흐름 탄 수원, 4연승 노려 서울, 감독 대행의 대행·4연속 무승... 골 가뭄 해결 관건 수원·서울 25R 승리에 인천-강원 경기결과 여부 주목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파이널B (7위~12위)로 추락하며 잠시 초라해진 '명가' 프로축구 수원 삼성과 FC 서울이 K리그1 잔류 확정을 노린다. 팀당 파이널 라운드 3경기씩을 남겨 놓은 가운데 이번 주말 열리는 25라운드에서 강원FC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잡고, 수원과 서울이 각각 승리를 챙긴다면 두 팀은 다음 시즌에도 1부에서 뛸 수 있게 된다. 8위(승점 27) 수원은 18일 오후 2

시 부산 구덕 운동장에서 10위(승점 24) 부산 아이파크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2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고, 9위(승점 25) 서울은 17일 오후 4시 30분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11위(승점 22) 성남FC와 원정 경기로 맞붙는다. 뒤늦게 좋은 흐름을 탄 수원은 잔류와 함께 시즌 첫 4연승까지 노린다. 수원은 박건하 감독 부임 후 최근 3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살려냈다. 한때 11위까지 추락하며

인천과 함께 '유력한 강등 후보'로 꼽혔으나, 8위로 올라서면서 '유력한 잔류 후보'가 됐다. 서울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최용수 전 감독 사퇴 후 팀을 이끌던 김호영 감독대행이 사퇴하면서 박혁순 코치가 '대행의 대행'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 최근 2연패를 포함해 4경기 무승(1부 3패)으로 주춤하다. 4경기에서 득점은 2개뿐으로 시즌 내내 시달려온 골 가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승리가 절실하다. 1부 잔류를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분위기 반전을 통해 남은 두 경기를 치를 동력을 얻게 된다. 근육 부상으로 이탈했던 기성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기성용은 지난주부터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풀타임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교체 출전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중요한 건 수원과 서울이 이번 라운드에서 스스로 잔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16일 강원팀이 인천의 발목을 잡아 야 한다. 절실한 쪽은 4일 수원에 지면서 다시 최하위가 된 인천이다. '생존왕'의 면모를 보일 기회는 3경기뿐이다.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치르는 원정 경기에 관중이 입장하지 않는 점도 인천에 호재다. 인천이 강원을 이길 경우 강원을 제외한 5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연합뉴스

탬파베이 졌지만 최지만은 빛났다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29)이 중요한 순간에 깊숙한 내야 안타, 볼넷으로 출루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팀은 패배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 짓지 못했다. 탬파베이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펠리피안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4차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대결에서 3-4로 패했다. 1~3차전을 모두 휩쓸며 '스윕승'을 노렸던 탬파베이는 시리즈 첫 패배를 당했다.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최지만은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타격하는 최지만.

연합뉴스

그는 0-1로 뒤진 2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팀 선발 투수 잭 그레인키에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안타는 2-4로 뒤진 6회에 나왔다.

그는 2사 1, 2루에서 유격수 쪽 깊은 타구를 만든 뒤 1루로 손살같이 뛰어가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최지만의 안타로 탬파베이는 2사 만루 역

전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마이크 브로소가 삼진으로 물러났다. 최지만은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도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그는 선두 타자로 나서 친금 같은 볼넷을 얻었다. 탬파베이는 최지만이 만든 기회를 잘 살리는 듯했다. 대타 브랜든 로가 삼진, 조이 웨들이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후속 타자 윌리 아다메스가 좌중간 적시 2루타를 터뜨리며 3-4 추격에 성공했다. 이후 상대 투수 폭투로 2사 3루 기회를 잡았다. 안타 하나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후속 타자인 썬소고 요시토모가 우익수 뜬 공으로 물러나며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두 팀은 16일 같은 장소에서 5차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탬파베이가 이기면 최지만은 한국 야수로서 첫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연합뉴스



티샷하는 고진영 1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라운드 1번 홀에서 고진영이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인·베일·흥민 'KBS 주말극장' 개봉박두

웨스트햄전 동시 출격 기대 손흥민(28)과 해리 케인(27·잉글랜드)에 개러스 베일(31·웨일스)까지 주연으로 나서는 잉글랜드발 'KBS 주말극장'이 한국 축구팬들을 찾는다. 손흥민(28)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는 오는 19일 새벽 0시 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0-2021시즌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뛰다 친정팀인 토트넘으로 7년 만에 돌아온 개러스 베일(31)이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점쳐진다. 구단은 전날 베일의 훈련 모습이 담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곧(soon)'이라는 문구를 달아 웨스트햄전 출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흥민과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이끄는 토트넘의 공격력은 이미 차고 넘친다. 손흥민이 6골 1도움으로



케인.

베일.

손흥민(오른쪽).

연합뉴스

도미니 칼버트-르윈(에버턴)과 함께 득점 랭킹 공동 선두에 올라있고, 3골 6도움을 올린 케인은 도움 랭킹 단독 1위에 자리해있다.

여기에 토트넘이 배출한 '원조 월드클래스' 베일의 가세는 토트넘의 공격력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류현진·김광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신인 후보 제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이 뽑는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즈' 최고 투수와 신인 선수 후보 명단에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이름이 빠졌다. MLB 선수노조는 15일(한국시간)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즈' 부문별 후보 3명씩 공개했다. 선수노조가 선정한 아메리칸리그(AL) 최고 투수 후보는 세인 비버(클리블랜드), 게릿 콜(뉴욕 양키스), 랜스 린(텍사스 레인저스)이다.

류현진은 외롭게 토론토 선발진을 이끌며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로 활약했지만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즈 AL 최고 투수 후보에 뽑히지 못했다. NL 최고 신인 후보 3명은 내야수 알렉스 보(필라델피아)와 제이크 크로넨워스(샌디에이고), 투수 데빈 윌리엄스(밀워키)다. 김광현도 8경기에 등판해 3승 평균자책점 1.62로 호투했지만, 최종 3인에는 오르지 못했다. NBC스포츠가 예상한 AL 사이영상 순위에서 류현진은 비버, 마에다 겐타(미네소타 트윈스), 콜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김광현은 NL 신인상 예상 순위에서 보, 토니 곤잘레스(다저스), 윌리엄스, 키브라이언 헤이스(피츠버그 파이어츠)에 이어 6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축
CONGRATULATIONS
임명
성균관 제33대 부관장

김준연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의방계 일도 21세, 애월을 남음, 高祖 성균전사·제주향교 교수 김용경)

본회 상임고문께서 성균관 부관장으로 임명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의방계 정현문중회장 김태선 외 회원일동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의방계 정현형제회장 김창언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상
'제41회 김만덕상' (경제인부문)

김순희
(주)오현개발 대표

제41회 김만덕상 경제인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돈사돈
대표 양정기·김순덕

축
CONGRATULATIONS
수상
제41회 김만덕상 경제인부문

김순희
(주)오현개발 대표
제주아너소사이어티 회원(86호)

제41회 김만덕상 경제인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아너소사이어티클럽
회장 박종선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